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한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동료 선수들로부터 행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美 대륙... 손세이셔널은 계속 된다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 FC(LAFC) 입단을 확정짓기 위해 5일 오후 출국했다. 축구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LA로 떠났다. 손흥민은 이미 LAFC와 입단 합의를 마쳤으며 사인과 공식 발표만 남겨 놓은 것

손흥민, LAFC 입단 차 미국행 계약서 서명·공식 발표만 남아 토트넘 10년간 454경기 171골으로 보인다. 토트넘 고별전이 된 3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전후해 손흥민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MLS행을 언론에 전한 가운데 차기 행선지 중 하나로 거론돼온 LAFC에 새 등지를 틀 전망이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5일(한국시간) 손흥민이 LAFC와의 계약을 알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르면 수요일(현지 시간 6일) 공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이 5일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LAFC행은 기정 사실이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며 공식전 454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EPL) 127골, 국내 컵대회 19골, 유럽클럽대항전 27골을 넣고 도움은 도합 101개를 올렸다. 2021-22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리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5월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 시즌 에이징커브를 겪은 손흥민은

이적설이 파다하던 2일 서울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통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토트넘과의 결별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행선지로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의 MLS 클럽을 암시했다. 스키아델라·연합뉴스

9승 선발 벌써 4명... LG "31년 만의 10승 4인 다시 한번"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은 "올 시즌 연승을 달린 팀들은 모두 선발 투수 야구를 했다"며 "우리도 시즌 초처럼 선발 투수가 잘 버텨 주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감독의 바람대로 LG 선발진은 후반기 1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59로 호투했다. 선두 한화 이글스에 4.5게임 차로 밀린



치리노스·임찬규·손주영·송승기 10승 고지 점령 눈앞

채 전반기를 마친 LG는 선발진의 호투를 발판삼아 후반기 13승(2패)을 거두며, 이 기간 7승(1무 5패)을 추가하는 데 그친 1위 한화와의 게임 차를 없앴다. LG는 승률 0.604(61승 2무 40패)로, 0.608(59승 3무 38패)의 한화를 승률 0.04

차로 추격하며 이번 주를 시작했다. 4일 현재 LG 선발 평균자책점은 3.61로 한화(3.30)에 이은 2위다. '선발승'은 41개로 한화와 공동 1위다. 한화는 외국인 투수 코드 폰세(13승), 라이언 아이스(12승 3패)가 25승을 합작했다.

LG에는 아직 '10승 투수'가 탄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LG는 요니 치리노스(9승 4패), 임찬규(9승 3패), 손주영(9승 6패), 송승기(9승 5패) 4명이 9승씩 올렸다. 하지만, LG는 요니 치리노스(9승 4패), 임찬규(9승 3패), 손주영(9승 6패), 송승기(9승 5패) 4명이 9승씩 올렸다. LG가 최근 '10승 투수 4명'을 배출한 건, 28년 전인 1997년이다.



4월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LG 선발투수 손주영(왼쪽)이 1회 말 투구를 마치고 1루수 오스틴과 열싸우고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